

종교에 음식문화가 미친 영향 최초 연구

김미숙 교수팀 '인도종교 음식문화와 심신수행 기제연구' 진행

인도에서 음식문화는 불교의 생성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고대 종교의 심신수행에 있어 음식문화가 미친 영향을 고찰하고 이를 통해 현대사회에서의 음식과 수행, 심신발달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가 국내 최초로 진행됐다.

김미숙 동국대 다라마칼리지 교수(인도 철학불교학연구소 연구원)는 12월 8일 '인도 종교의 음식문화와 심신 수행의 기제연구'가 한국연구재단 2014 공동연구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김미숙 교수는 1년간 1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으며 연구팀에는 이자량 동국대 불교학술원 HK연구교수와 김재민 동국대 불교대학원 융합요가학과 겸임교수가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한다.

김 교수의 연구팀은 인도종교의 음식관을 분석하고, 각 종교의 생성단계에서 이러한 음식관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연구한다. 이러한 매커니즘을 통해 각 종교는 수행법을 어떻게 발달시켰는지를 밝혀낸다.

특히 중세 인도에서 서민들이 쓰던 프라크리트어와 산스크리트어, 팔리어로 된 원전과 한문경전을 토대로 우리나라 사찰음식의 배경과 사상적 기반도 연구할 예정이다.

1차 연구과제는 인도의 3대 종교로 꼽히는 힌두교와 불교, 자이나교를 중심으로 각 종교에서 규정하는 음식에 대한 원칙과 관습이 어떠한지 먼저 조사한다. 이어 교구의 특징을 면밀히 관찰해 각 종교별로 심신수행의 기제 이론을 정립한다.

2차 연구과제는 3대 종교를 통합한 인도종교 특유의 심신수행론과 음식관을 도출해낸다.

음식문화와 심신수행의 관계를 연구하는 분야는 그동안 연구가 빈 박 없는 미답의 영역이다. 인도 종교에 대한 연구가 희소하기 때문에 이번 과제와 일치하는 선행연구 또한 찾기가 힘들다. 한국연구재단 차원의 지원도 최적이다.

김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10년 넘게 발전하고 있는 사찰음식과, 템플스테이에 대



인도 알라바드 지역에서 힌두교 최대의 행사 중 하나인 '마하 쿨' 페스티벌에 참석한 힌두교도들이 단체로 식사를 하고 있다. 김미숙 교수(사진 원 안)의 연구팀은 인도의 힌두교, 자이나교, 불교의 음식문화와 수행전통과의 관계를 조명한다.

한 연구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교수는 "연구주제를 불교·힌두교·자이나교의 음식관으로 압축한 이유는 불교와 자이나교는 슈라마나 전통을 대표하는 출가 중심의 종교이며, 힌두교는 브라마나 전통의 재가 중심 종교로서 두 전통 사이에는 식생활에 대한 차이로 매우 독특하며 상이한 문화가 발달했기 때문"이라며 "세 종교의 음식관의 차이점으로 인도 종

교문화 발전에 미친 영향과 불교 전래과정에서 각국 사상에 미친 영향 등을 살펴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우리나라에서 인도 종교에 대한 연구가 희소한 까닭에 향후 종교와 음식관계 분야의 초석이 될 연구"라며 "한국 사찰음식 심화에서 신성한 동인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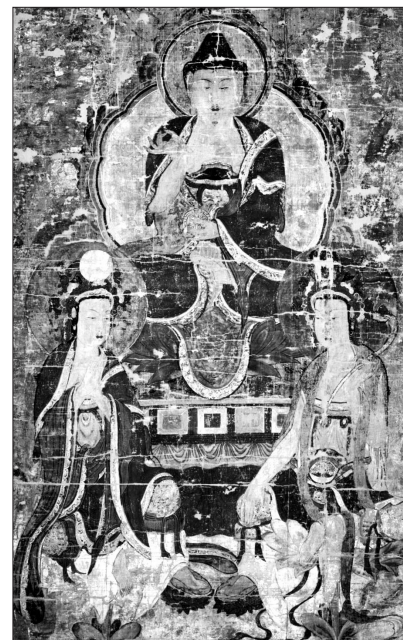
2년의 노력... 세상에 나뉜 영국의 '칠성도'

국립중앙박물관 복원, 영국박물관 "삼존도 인출..."

국립중앙박물관(관장 김영나)은 최근 영국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조선 후기 칠성도(七星圖)에 대한 보존처리를 진행했다.

국립중앙박물관과 영국박물관은 2011년 '한국회화 보존 및 전시를 위한 상호협약'을 맺고 한국회화 보존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칠성도는 2012년 4월부터 2년 6개월간 진행됐다. 영국박물관은 보존 처리된 한국회화를 모아 한국실 전시를 진행할 계획이다.

칠성도는 족자 형식으로 장황된 견본채색화로 1950년대부터 영국박물관에 소장돼왔다. 가로 꺾임에 의한 균열과 결실부분이 많고 화면 오염이 심해 그동안 전시되지 못하고 보관만 되어왔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몇몇 부분을 최대한 제거해 원형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존처리했다. 영국박물관에서 칠성도의 훼손이 너무 심해 그동안 '삼존도'(Seated Buddha and two attendant Bodhisattvas)로 명시해



왔으나 이번 보존처리 결과 조선 후기 '칠성도'라는 것이 밝혀졌다. 노덕현 기자

폭설로 보물 대조사 미륵보살입상 파손

문화재청 12월 7일 긴급보수 실시

문화재청은 보물 제217호인 충남 부여 대조사 석조미륵보살입상의 머리를 장식한 보관(寶冠)의 일부가 지난 7일 폭설로 파손됐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적설량 120mm를 기록한 이번 눈에 부여군 보호수 제163호인 불상의 주변 소나무 가지가 부러지면서 보살입상의 보관을 쳤다고 덧붙였다.

이번 폭설로 인해 가지가 부러진 소나무는 지난 1979년 8월 7일부터 부여군이 보호수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문화재청과 국립문화재연구소는 긴급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파손된 부위에 대해 안전조치를 취했다. 또 현지 조사 결과에 따라 적정



사진 원 표시 부분이 파손된 것부분
한 보수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부여 대조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은 고려시대인 12세기에 제작된 높이 10m의 대형 석조상이다. 노덕현 기자

"가람은 출세가 공동의 수행·문화공간"

원형 스님, 중앙승가대 불교학연구원 제6차 세미나서

"가람의 본의미는 출·재가가 수행하고, 생활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21세기 가람은 지금까지의 부처님공간, 스님들의 수행공간에서 더 나아가 재가자들의 신앙공간이며 문화적인 공간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현재 사용하지 않는 사찰 토지를 활용하고, 신규 불사자 불자들의 문화공간, 법회장, 주말농장 등 일상과 소통하는 공간 구성을 배려해야 합니다."



원형 스님은 '불교사상 속의 가람' 기초 강연을 통해 "오늘날 가람은 '승려가 살며 불도를 닦는 곳'으로 정의하지만 5세기까지만 해도 승려거주지 뿐만 아니라 불자들의 거주와 생활 공간까지 포함하는 영역을 지칭했다"며 "가람은 불법승의 삼요소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며 불교를 신앙하는 공간이기에 승려만의 공간으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원형 스님은 이어 금산사의 가람불사사례를 예로 들었다. 원형 스님은 "2005년부터 8년간 10여채의 당우를 불교전통에 의해 복원하는 과정에서 한옥의 문화기법관을 세우고 대불련 총동문회, 한전반야회 등의 법회장소, 합동수계식 공간, 템플스테이 공간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의형적인 불사가 능사는 아니지만, 이제 사찰 측에서는 가람불사에 있어 재가신도들의 생활 및 문화 공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노덕현 기자

"정조문선생 유지이어 문화재 환수를"

동북아불교미술학,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학술대회

재일교포 1세대로 일본에 산재한 한국 문화재를 수집해 교토에 고려미술관을 세운 정조문 선생을 제모는 학술세미나와 기념전이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소장 석문) 주최 하에 12월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렸다.

정조문 선생(사진)의 생애를 그린 영화 '나는 재일조선인이다' 상영을 시작으로 문을 연 학술대회에서 최선일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은 '고려미술관 소장 불교 문화재 현황'을 통해 정조문 선생에 대한 자료를 공개했다. 최 위원에 따르면 정조문(1918~1989) 선생은 예천군 풍양면 우암리 출신으로 6살 때인 1924년 가족과 함께 일본으로 건너가 부두 노동자로 일하며 어린 시절을 보냈고 재일 조선인이라는 온갖 압박 속에서도 전 재산을 들여 일본에 유출된 한국 문화재를 모았다.

최 위원은 "정조문 선생이 세운 교토의 고려미술관에는 현재 1700여 점의 한국 문화재들이 있다. 이는 정조문 선생이 미술품에 대한 지식이 없음에도 일본인의 손에서 '조선'을 되찾아야겠다는 집념으로 문화재를 수집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최 위원은 이어 "정조문 선생은 '남북통일이 되면 유물을 조국에 기증하라'고 유언을 남길 정도로 통일 조국을 염원했던 문화애국자"라며 "정조문 선생의 바람과



같이 교토 고려미술관의 한국문화재들이 한국으로 돌아오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해외에 유출된 문화재를 다시 재현한 작가들이 작업 과정을 통해 알게 된 전통 제작 방식을 밝히기도 했다. △노경용 대한조형연구소 소장은 '고구려 소조불상 제작 과정 연구'를 통해 국내 최초로 고구려 소조불상을 제작하는 방식을 설명하며 "후으로 거꾸집을 만들어 제작한 것이기에 일본 교토 후지이유리칸, 국립중앙박물관 등 여러 박물관과 미술관에 분산되어 있는 원형과 편들을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하면 복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봉석 목조조각장의 '고려미술관 색나스님 作 목조불감의 재현' 등이 발표됐다. 학술대회에 이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나무갤러리에서는 '잊혀진 문화재...정조문을 만나다'를 주제로 관련 전시회를 개최했다. 노덕현 기자

베일에 가려진 경주 월성 발굴된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과 경주시(시장 최양식)는 한국 고대사에서 베일에 가려진 신라 공성인 사적 제16호 경주 월성 발굴조사를 시행한다.

경주 월성 발굴조사는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수행한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12월 12일 관련기관 관계자, 경주시민, 관심 있는 일반인을 초청해 고구려(지역주민에게 발굴조사의 시작을 알리고 조사단의 안전과 성공적인 조사를 기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발굴조사 전 과정은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경주 월성 발굴조사가 다른 유적 발굴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학계, 지



경주 월성 디지털 조감도
역 주민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관광자원화 해 신라 천년 고도 경주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 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똥똥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축적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기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어도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월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월빙」을 치세요.

도무지 잠이 안와!
자다 깨다 좀더 자고 싶은데 잠이 안와!
폭자지 못해! 쉽게 잠들지 못해!

휴 힐링 베개

미국 FDA 3009241067 승인
스스로 딱 맞게 조절하는 베개

반듯이 누워도 옆으로 누워도 딱 맞는 IQ 가장 높은 천체 베개 베개를 베지 않은 것 같은 완벽한 높이야야 깨면, 숙면, 꿀잠 베개 높이가 딱 맞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언제나 그자리! 뒤척임 잘되어야 냉병 이기는 진짜 베개 폭신, 물렁, 포플 너무 높은, 낮은 베개는 버려라!

나쁜 베개는 오래 자면 더 피곤, 건강 NO

1000명이 3년간 사용한 결론, 여행갈 때 100% 가지고 다니는 베개

스트레스 겹겹이 쌓여 못자고, 못쉬고, 못풀고 침대에 쓰러지면 뒤통 밤새 불면증과 정정 고생 뿐!
베개 높이 안맞아 가슴 답답, 우울, 수면 장애, 어깨 빠근, 손발저림, 목아픔, 결림, 허리 빠근 바른 빠른 치유

어린이는 조금만 자라도 베개 높이 조절해야 한다(중요)

베개, 침대 아무리 좋아도 입벌리고 자면 끝장
(입안 건조, 침마름, 눈, 코, 얼굴 건조 원인)

템플스테이에서 와선 삼매를 100% 체험 할 수 있는 유일한 베개

www.법왕정사.net ☎ 010.3487.0035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 힐링치유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명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르고 영산회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신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극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前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 (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범패를 활용한 소리명상 힐링 치유는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영산재 보존도량 봉원사 경내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00~9:00
- 수강대상 : (1)영산재 범패소리 명상을 통한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을 치유 받고자하는 모든 분 (2)영산재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3) 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외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육천법음대 졸업, 중앙승가대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기술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영산재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 (소장: 처명)